

코로나19 감시체계를 통하여 확인된 국내 3차 병원 직원 내 캄필로박터 감염증 집단 발병

가천대 길병원 내과학교실¹, 가천대 길병원 감염관리실²,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³

류희영¹, 이재백², 엄중식³, 홍신희³, 박운선³, 시혜진³

서론: *Campylobacter species(ssp.)*는 전세계적으로 흔한 위장관 감염의 원인 중 하나다. 본 증례에서는 국내 3차 병원 에서 COVID-19 감시 체계를 통하여 유행이 확인된 *Campylobacter species* 직원 집단 감염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: 인천 소재 3차 병원에서, 직원 COVID-19 검사 결과 취합 중 4월 26일 15명의 직원이 설사를 동반한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음이 인지되었다. 조사 중 24세, 41세 2명의 직원이 4월 26일, 27일 위장관 감염증으로 입원 하였음과 두 명 모두 4월 22일 병원식당에서 같은 B식사 (만두까스)를 먹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집단발병 의심 하에 유행 조사를 시행하였다. 사례는 4월 22일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섭취한 사람 중 장관감염 증상(설사 3회 이상, 구토, 오심 등)이 있는 자로 정의하여 전수 조사하였다. 조사결과 총 41명의 직원이 유증상 이었다. 4명의 입원, 15명의 응급실 진료, 6명의 외부 병원 방문력이 확인되었고, 응급실 진료를 받은 15명 중 8명이 같은 B식사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. 입원한 직원 4명의 대변 세균성 유전체 증폭 검사(PCR) 검사에서 *Campylobacter Spp.* 가 분리되었고, 보건소에 검사 의뢰된 41명의 대변 검체 중 25건에서 *Campylobacter Jejuni*가 확인되었다. 203건의 환경 검체에서는 불 검출되었다. 식이 섭취 후 1~3일 경과 후 증상이 발생한 직원이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일 이후 발생한 직원은 18명이었고 이후에 증상이 새로 발생한 직원은 없었다. COVID-19 감시체계를 통하여 원내 위장관 감염 집단 발병을 확인하였다. 감염 원인 균은 *Campylobacter Jejuni* 였고, 보존식 중 만두까스를 원인으로 추정하였다. 보존식 보관의 강화와, 조리과정에서의 위생준수를 교육하였다.

고찰: 이번 사례는 COVID-19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발견으로, 비용과 인력 소모를 야기한 COVID-19 감시체계의 다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발열 환자에 대한 평가 시 다양한 질환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는 것이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

검체구분	검체건수	검사결과
인체검체	대변검체 4명 (원내검사_세균성 PCR)	<i>Campylobacter. Spp</i> 4명 양성
	대변 및 직장도말 41명 (보건환경연구원_세균 culture)	<i>Campylobacter jejuni</i> 25명 양성 (원내검사 양성 4명 포함)
환경검체	203건	음성